

덕이고등학교 도서관 추천도서

연번	제목	저자	출판사	내용	분야
1	열두 발자국	정재승	어크로스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뇌과학자의 조연에 귀기울여보자.	과학일반
2	야밤의 공대생 만화	맹기완	뿌리와이파리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만화책. 평소 교과서 속에서 누구나 이름은 들어봤을 과학자들, 재미없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과학자들이 에피소드들이 꽤나 흥미롭다.	과학일반
3	사소한 것들의 과학	마크 미오 도닉	MID	글쓴이는 '재료는 인류의 필요와 욕망의 복잡한 발현물'이라고 정의한 뒤 강철, 종이, 콘크리트, 플라스틱, 유리 등 일상적인 물품을 만드는 대표적인 재료 10가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과학일반
4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오후	웨일북	문과생이 쓴 과학책. 과학과 담 쌓은 사람들도 부담 없이 재밌게 읽을 수 있다. 질소, 단위, 플라스틱, 성전환, 우주과학, 기상청이라는 주제에 관해 시시콜콜 해박하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과학일반
5	과학하고 앉아있네(10권 시리즈)	원종우 외	동아시아	과학 강이나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과학을 해석하고 의미를 보여주는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팟캐스트 '과학하고 앉아있네'의 주제이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과학 팟캐스트를 책으로 만들었다.	과학일반
6	과학 콘서트	정재승	어크로스	물리학자인 작가는 인간과 사회를 해석하기 위해 자연 현상의 원리들을 가져온다. 복잡해 보이는 세계를, 법칙을 활용해 정리한다면 인간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했다는 작가의 말이 인상 깊다.	과학일반
7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하재영	창비	내가 키우는 반려견은 어디에서 태어나 어떻게 내게로 왔을까? 번식견, 유기견, 식용견, 반려견... 우리가 키우고 버리고 먹는 개들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고 무분별하게 키워지며 함부로 버려지고 죽어가는지를 파헤친 르포이다. 동물은 쓰고 버리는 물건인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동물
8	퇴근길엔 카프카를	의외의사실	민음사	만화로 읽는 세계 문학 에세이.	만화

9	저 청소일 하는데요?	김예지	21세기북스	꿈과 생계를 모두 가능하게 해줄 직업으로 청소 일을 시작한 저자가 지난 4년 간 경험한 삶의 여러 순간들을 담은 만화로 옮겼다. 타인이 만든 편견뿐 아니라 스스로 만든 편견과도 싸우는 과정을 통해 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	만화
10	만화 토지 1-17	오세영	마로니에북스	1897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 시대의 우리 민족의 삶을 섬세하게 그려낸 대하소설 토지를 바탕으로 한 만화책.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감동적으로 담았다.	만화
11	팩트 체크	JTBC 뉴스룸 팩트체크제작팀	중앙북스	무심코 지나치지만 우리의 일상과 생계와 직결돼 있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
12	판사유감	문유석	21세기북스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비>를 쓴 현직 부장판사 문유석의 책이다. 그가 말하는 법과 정의, 우리 사회와 사법부의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회
13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	강윤중	서해문집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이 되어온 대상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 생생한 현장의 사진과 함께 묵직한 글이 실려 있다.	사회
14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	이창무 외	메디치미디어	최근 사회에서 기승을 부리는 범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한 책. 특히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 관련 범죄 내용이 잘 나와 있다.	사회
15	열 가지 당부	하종강 외	창비	노동과 무관한 삶은 없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실제로 알바를 시작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며 어떻게 계약서를 쓰는지 등 자세히 알 수 있다. 노동자가 될 우리 모두가 꼭 읽어 봐야 할 책.	사회
16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천종호	우리학교	천종호 판사의 소년재판 이야기. 법정에서 선 청소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을 담았다.	사회
17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사계절	1급 지체장애인인 변호사 김원영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삶', '실격당한 인생'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하고 매력적임을 증명해 보이는 변론을 시도한다.	사회

18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낸다	이수정 외	중앙M&B	범죄심리학자가 여러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한 책. 우리는 돌아온 그들과 결국은 함께 살아가야 하므로 그들을 악마로 보기 보다는, 이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노력 기울이자고 말한다.	사회
19	병원장사	김기태	씨네21북스	과잉진료로 돈을 벌려는 병원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생각하지 못했던 병원의 상업화와 술수에 놀라게 되는 책.	사회
20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최인기	동녘	부제는 '무엇이 그들을 도시의 유령으로 만드는가?'이다.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으로 20년 넘게 빈민운동의 현장에서 싸워온 저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다.	사회
21	덜미, 완전범죄는 없다1	한국일보 경찰팀	북콤마	완전범죄를 노리는 범죄자들과 이를 쫓는 형사들의 치열한 싸움, 이 책을 읽다보면 수사관들의 집요함과 치밀함에 존경이, 한편으론 과학수사 기법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사회
22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원회	나눔의집	최저생계비로 사는 삶이 어떤지 살피며 복지를 제대로 하자고 제안하는 책	사회
23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민동기	휴먼큐브	언론 비평이 모여 있어서 한국의 언론 상황을 잘 알게 됨. 뉴스를 주체적으로 읽는 방법을 알려준다.	사회
24	누가 진짜 범인인가	배상훈	엘피	범죄심리분석관이 여러 범죄를 설명하는데 사건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사회
25	노동, 우리가 정말 알고 있을까	노현웅외	철수와영희	한겨레 사회부 기자들이 직접 체험한 제조업 주야 맞교대, 콜센터, 초단시간 노동, 배달대행업체, 게임업계 QA등 '균열 일터' 현장에 대한 기록.	사회
26	내가 걸은 만큼만 내 인생이다	김여진 외	한겨레출판	강풀, 심상정, 장항준 등 학생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의 인터뷰 강연모음집.	사회
27	나쁜 뉴스의 나라	조윤희	한빛비즈	언론을 이해하는 기본 소양이 길러져서 왜곡보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책.	사회

28	권력과 언론	박성제	창비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인 아홉 사람의 인터뷰를 담아 언론의 현실을 낱것으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회
29	공범들의 도시	표창원	김영사	범죄수사분석 전문가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한국의 범죄 대응체계를 설명한 책.	사회
30	고기로 태어나서	한승태	시대의창	한국 식용 동물 농장 열 곳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자기 자신과 그곳에서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 한 닭, 돼지, 개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사회
31	9시의 거짓말	최경영	바다출판사	언론이 왜곡보도를 어떻게 하는지 사례로 알기 쉽게 설명함. 저자는 방송기자로 오래 활동한 경험을 살려 한국 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낸다.	사회
32	25년간의 수요일	윤미향	사이행성	무려 25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오고 있는 수요일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떻게 처절한 고통의 역사 속에 휘말리게 되었고, 해방 후 50여년 동안 이어진 긴 절망의 세월을 깨고 어떻게 진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는지, 그 침묵과 고백의 역사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사회
33	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	이수정	철수와영희	알바 하는 청소년들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노동법 상식을 정리한 책	사회
34	10대와 통하는 땅과 집 이야기	손낙구	철수와영희	주거 형태에 따라 서로를 구별짓는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다룬 책. 인간이 사는 데 땅이 어떤 의미인가에서부터 집값이 왜 오르내리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구해서 사는지 등 주거 문제에 관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책	사회
35	10대와 통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	차남호	철수와영희	일하고 월급 받는 노동자의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	사회
36	인류의 기원	이상희	사이언스북스	인간은 왜 요통에 시달리는지, 인간의 출산과정에는 왜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한지와 같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이 생겨난 이유를 파악한 책	생명과학

37	서민의 기생충 열전	서민	을유문화사	이 책을 읽고 나면 '기생충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는 글쓴이의 포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미미한 것을 향해 애정과 열정을 품는 작가의 모습에 웃음과 동시에 가슴 찡함을 느끼게 된다.	생명과학
38	비숲	김산하	사이언스북스	저자는 국내 최초의 야생영장류학자다. 이 책에는 그가 인도네시아의 밀림에서 생활하면서 긴팔원숭이를 관찰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재치 있는 문장 속에서 학문에 대한, 그리고 동물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생명과학
39	랩걸 Lab Girl	호프 자런	알마	여성 과학자로서 쉽지만은 않았던 분투 과정을 담담하게 그렸다. 학자로서, 또 엄마로서의 삶과 사유를 풀어내면서 식물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나무를 통한 아름다운 인생 비유도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책.	생명과학
40	동물원에서 만난 세계사	손주현	라임	역사의 흐름에 따라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되짚어 본다.	생명과학
41	해가 지는 곳으로	최진영	민음사	바이러스로 엉망이 된 지구를 배경으로 세상의 멸망과 그 안에서의 희망을 이야기 하는 책	소설
42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이주란	문학동네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에게 잔잔한 위로를 전해주는 책	소설
43	필경사 바틀비	허먼 멜빌	문학동네	어떤 명령을 내려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를 반복하는 바틀비.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생각해보게 한다.	소설
44	피구왕 서영	황유미	빌리버튼	청소년기의 관계 형성, 동생과의 차별, 탈코르셋, 사람들의 무례함에 대처하는 방법 등 학창시절에 겪게 되는 에피소드 들을 다루고 있다.	소설
45	편의점 인간	무라타 사야카	살림	편의점의 부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주인공 후루쿠라.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결혼하는 삶이 '정상적'이라고 요구되는 사회에 동의하지 못하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는 책	소설

46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김연수	문학동네	입양소녀가 자신의 친모를 찾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아픔을 다룬 이야기. 가로막힌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주인공의 선택은 독자를 생각에 잠기게 한다. 문장이 참 아름다운 소설.	소설
47	체공녀 강주룡	박서련	한겨레출판	역사 속에 숨어 있던 인물 강주룡을 재조명한 소설. 간도와 평양을 오가며 우리나라 최초의 고공농성을 벌였던 대찬 여성 '강주룡'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설
48	제7일	위화	푸른숲	주인공이 죽음 이후 7일 동안 인생을 돌아보고 진실을 깨달아가는 이야기.	소설
49	자기 앞의 생	로맹가리	문학동네	로자 아줌마와 살아가는 꼬마 모모의 이야기. 사람이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느냐고 묻는 꼬마 철학자 모모가 살아가는 이야기로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설
50	일의 기쁨과 슬픔	장류진	창비	경쾌한 문체로 일의 기쁨과 슬픔을 보여주는 단편집. 일상 속에서 흔히 겪을 만한 사건을 소재로 작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소설
51	유령 해마	문목하	아작	무한의 기억과 감각으로 존재하며 인간이 필요한 곳에서 인간을 구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해마라는 존재와 인간 '이미징'이 인간 세상을 컨트롤하는 거대 시스템에 맞서는 이야기. 편리와 인간존엄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까를 묻게 된다.	소설
52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허블	유전자 조작으로 완벽한 인간탄생이 가능하고, 우주의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며, 기억저장소가 존재하는 시대에 인간에게 중요시되는 가치가 무엇일까를 질문하는 이야기.	소설
53	어깨 너머의 연인	유리카와 케이	예문사	20대 여성들의 일과 사랑, 결혼에 대한 고민을 그려낸 소설이다. 전혀 다른 성향과 관점 지닌 두 친구의 서술이 교차되어 비교하며 읽는 재미가 있다.	소설
54	아침을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거야	조수경	한겨레출판	안락사가 허용되는 가까운 미래, 죽음을 결정한 사람들이 모여 죽음을 준비하다가, 삶의 끈을 찾게 된다. 자살, 안락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점이 참신하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슬프고도 따뜻한 이야기.	소설

55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안재성	창비	북한 노동당 청년간부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 10년간의 수용소, 감옥 생활을 겪은 실존인물 정찬우의 수기를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소설
56	아몬드	손원평	창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 '윤재'와 그 앞에 나타난 분노의 화신 '곤이'. 차츰 쌓여가는 특별한 우정을 따라 윤재는 조금씩 내면의 변화를 겪는다. '괴물'이라 불리는 두 소년이 세상을 향해 내딛는 걸음을 응원하다보면 고통과 공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소설
57	아름다운 집	손석춘	들녘	일제 강점기에 열정적으로 살아간 독립운동가들이 남북분단으로 허물어져간 안타까운 사연을 담았다.	소설
58	쇼코의 미소	최은영	문학동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고 주고 받는 상처와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등을 세심하게 살피 묘사한 책. 각 단편이 모두 섬세하여 독자가 감정 이입을 하며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다.	소설
59	소년이 온다	한강	창비	5.18광주항쟁과 그 이후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소설
60	서점의 다이아나	유즈키 아사코	한즈미디어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책을 인연으로 친해지게 된 두 소녀의 성장담. 오해로 틀어지는 시기도 겪지만 순수한 우정을 키워나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소설
61	서른 『비행운』	김애란	문학과지성사	인간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수인'의 ,꿈과 돈(다단계)에 관한 이야기.	소설
62	빡치GO 박차GO	장정희	우리학교	대금을 전공하는 남학생이 꿈을 이뤄가는 이야기	소설
63	봄비 내리는 날	김한수	창비	능력 없는 아버지가 경쟁에서 밀려나고 그 모습을 미워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함.	소설

64	베어타운	프레드릭 배크만	다산책방	보기엔 아름답지만 경제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베어타운'. 청소년 아이스하키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마을이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 대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과 대의에 용감히 맞서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묻는다.	소설
65	백의 그림자	황정은	민음사	순수한 두 사람이 만나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신비롭고 아름답게 그린 책	소설
66	바깥은 여름	김애란	문학동네	인간 내면의 서늘한 그림자, 얼어붙은 내면을 만날 수 있는 단편집.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어디까지 가능할지, 예상치 못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는 책	소설
67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문학동네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판사들은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쉽게 들려준다.	소설
68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최시한	문학과지성사	청소년들의 욕망과 시선, 우정, 애정, 고독, 삶에 대한 성찰 등을 모두 다섯 편의 연작으로 그리고 있다.	소설
69	마르타의 일	박서련	한겨레출판	SNS스타였던 동생이 죽자 그 원인을 쫓아가면서 사랑받던 모습 뒤에 감춰진 동생의 고통을 비로소 목격하게 된다는 이야기.	소설
70	디디의 우산	황정은	창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남자가 세상 속으로 다시 발을 딛는 이야기	소설
71	두근두근 내인생	김애란	창비	열일곱 아람은 어른이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병, 조로증에 걸렸다. 철없던 나이에 엄마, 아빠가 된 아람의 부모와 아람의 유일한 친구인 이웃의 할아버지가 아람을 둘러싼 세상. 아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소설이다.	소설
72	당신 인생의 이야기	테드창	엘리	과학적인 상상력으로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린 책. 영화 컨택트의 원작소설	소설
73	단순한 진심	조해진	민음사	입양아인 주인공이, 자신을 기차길에 버린 생모와 입양전 자신을 잠시 맡아 키워줬던 기관사를 찾으려 알게 된 여러 사람들의 진심에 대한 이야기.	소설

74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면	김보현	은행나무	좀비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마을에 혼자 살아남은 '원나'가 좀비가 된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이야기.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책	소설
75	누구에게나 친절하 교회오빠 강민호	이기호	문학동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수용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 가능하며, 그 환대는 상대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는지 생각하게 하는 책	소설
76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이성과힘	70년대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그려낸 고전, 읽기 어렵지만 생각을 얻게 된다.	소설
77	나를 보내지 마	가즈오 이시구로	민음사	1990년대 후반 영국,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단절된 기숙 학교 '헤일섬'을 졸업한 후 간병사로 일하는 캐시의 시선을 통해 인간의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복제되어 온 클론들의 사랑과 성, 슬픈 운명을 그리고 있다.	소설
78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장강명	문학동네	고2때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던 동급생을 살해하고 소년 교도소에 갔던 남자와 동창이었던 여자가 어른이 되어 소설 공모전을 통해 재회한다. SF적 환상을 동반한 시간의 굴절 속에서 폭력과 용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소설
79	경성 트로이카	안재성	사회평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이야기가 소설로 되어 있어서 그 인물들의 마음이 느껴진다.	소설
80	겨울방학	최진영	문학동네	같은 방향으로 걷도록 요구되지만, 각자 다른 모습이기에 자신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소설
81	건너간다	이인휘	창비	작은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장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이야기	소설
82	9번의 일	김혜진	한겨레	통신회사 현장팀에서 일하던 '나'가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원치 않는 부서발령이 나면서 벌어지는 일	소설
83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34살 김지영 씨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인다. 그녀의 정신 상담 내용(인생 궤적)을 재구성해 기록한 리포트 형식의 소설로 대한민국에서 여성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에 대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소설

84	이토록 아름다운 수학이라면	최영기	21세기북스	수학의 아름다움을 인생의 비유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 아름다운 수학의 세계에 폭 빠져들 수 있는 책이다. 수학은 어려운 공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편안한 언어로 풀어내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수학
85	수학이 필요한 순간	김민형	인플루엔셜(주)	이 세상의 자연법칙뿐만 아니라 사회현상도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 수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수학
86	수학으로 힐링하기	이수영	홍성사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인 수학으로 힐링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생각하겠지만 아무 쪽이나 펼쳐 한 편만 읽어보면 느낄 수 있다. 수학 기호와 식이 수필로 펼쳐져 마음속에 삶으로 들어오는 수학을. 이 책을 읽는다고 수학을 잘 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수학에게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음은 확실하다.	수학
87	무기력의 비밀	김현수	에듀니티	무기력한 청소년들이 왜 그런지 원인을 살피고 해결책을 찾는 책으로 아이들이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과 도울 방법을 제시한다.	심리학
88	후아유	이향규	창비교육	자신이 다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곱씹어 봐야 할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담은 에세이.	사회
89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오찬호	블랙피쉬	여성 혐오, 장애인 차별, 사회적 약자 차별에 관한 글.	사회
90	인턴일기	홍순범	글항아리	세상의 모든 평범한 의사들이 일상에서 겪는 일들이 담긴 책이다. 새내기 의사가 대학병원의 각 과를 거치며 겪은 일을 기록한 수첩에 근거해 탄생했다.	의학
91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오후	동아시아	우리나라는 과연 마약 청정국일까? 재치 있는 말투로 마약 역사, 종류, 효능, 관련 정책 등을 조곤조곤 설명한다. 의사는 물론, 경찰이나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학생이 읽어도 좋다.	의학
92	아빠의 아빠가 됐다	조기현	이매진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홀로 돌본 '고졸 흡수저' 아들의 9년을 기록했다. 저자는 돈, 일, 질병, 돌봄, 돈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달리며 아픈 가족의 현재와 돌봄 당사자의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묻는다. 국민이 개개인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책.	사회

93	아무튼, 양말	구달	제철소	읽고 나면 양말로 멋 부리고 싶어지는 책. 양말 덕후의 귀여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매일 아침 양말을 고를 때 설렘이 한 스푼 추가된다.	에세이
94	아무튼, 비건	김한민	위고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비건의 삶, 생각보다 좋고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진 저자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동물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게 된다.	에세이
95	아무튼, 떡볶이	요조	위고	뮤지션 요조와 자신의 삶에서 유의미 했던(?) 떡볶이의 추억을 맛깔나게 풀어냈다. 책을 쓰기 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과 떡볶이 순례가 교묘하게 만나는 것도 읽는 재미.	에세이
96	선량한 차별 주의자	김지혜	창비	생활 밀착형 차별 통찰 에세이.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에 스며있는 차별적 사고를 되돌아볼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 나는 차별을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차별을 하고 있기 쉽다는 말 때문에 더 꼼꼼하게 읽게 된다.	사회
97	망원동 에코 하우스	고금숙	이후	도시'와 '생태'의 아름다운 공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갖가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을 보여주는 책	사회
98	마음의 구석	서범 외	문학동네	꿈, 돈, 마음, 관계..... 어느 것 하나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 막막해하는 여성들의 고민과 성장을 담았다. 꺼내놓기 쉽지 않은 '마음의 구석'을 읽다 보면 숨기고 싶은 찌질한 내 모습, 어디에도 보이지 어려운 마음의 문제가 조금은 사랑스러워진다. 심리상담을 전공한 작가의 글이다.	심리학
99	개똥 세 개	이정범 외	북멘토	강수돌, 안건모, 홍세화 등 유명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인생교훈을 주기 위해 쓴 짧은 글 모음.	에세이
100	청소년 역사 특강	한홍구	철수와영희	현재 한국의 모습을 있게 한 과거의 역사를 항목별로 설명한다.	역사
101	비이성의 세계사 :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녀사냥들	정찬일	양철북	인류 역사상 있었던 여러 학살 사건을 다룬 책.	역사
102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	김육훈	휴머니스트	대한민국이 생겨나던 시기의 역사적 고민을 잘 정리해 놓은 책.	역사

103	다리를 잃은 걸 기념합니다 : 할 아버지와 1차 세계대전과 나	니콜라우스 뉘첼	서해문집	작가의 조부모 체험을 중심으로 1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함.	역사
104	그들의 다른 선택	선안나	피플파워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를 비교한 책	역사
105	1차 세계대전 :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러셀 프리드먼	두레아이들	1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책	역사
106	잃었지만 잊지 않은 것들	김선영	라이킷	아버지를 암으로 잃었던 소녀가 의사가 되어, 예전에 쓴 부모님의 병상일기를 읽는다. 2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의료 시스템은 안타깝지만, 환자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는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는 저자,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가 빛나는 에세이.	의학
107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오후	동아시아	우리나라는 과연 마약 청정국일까? 재치 있는 말투로 마약 역사, 종류, 효능, 관련 정책 등을 조곤조곤 설명한다. 의사는 물론, 경찰이나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학생이 읽어도 좋다.	의학
108	우리 몸이 세계라면	김승섭	동아시아	평등하게 건강한 삶을 꿈꾸는 저자는 자본 논리에 의해 건강이 위협 받는 현실, 차별로 인한 건강불평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 이어 몸과 질병에 대한 주제를 '지식'에 방점을 찍어서 집필한 책.	의학
109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동아시아	저자는 의사이자 사회역학자로서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차별의 경험이 몸에 어떤 상흔을 남기는지,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책을 읽어보자.	의학
110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올리버 색스	알마	평생을 신경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저자가 지금까지 자신이 만난 환자들과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풀어낸 책. 다양한 종류의 임상사례들을 엿볼 수 있고, 특히 환자들을 생각하는 저자의 마음이 잘 전해진다.	의학
111	숨결이 바람될 때	폴 칼라니티	흐름출판	신경외과 의사로서 치명적인 뇌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며 죽음과 싸우다가 자신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마주하게 된 서른여섯 젊은 의사 폴 칼라니티의 마지막 2년의 기록.	의학

112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유성호	21세기북스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가 죽음을 통해 다양한 삶에 대해 고찰하고, 범죄에 관련된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도 한다. 죽음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부터 삶과 죽음의 경계에 관한 철학적인 관점까지 죽음과 관련된 폭넓은 관점을 나눈다.	의학
113	골든 아워 1, 2	이국종	흐름출판	17년간 외상외과 의사로서 맞닥뜨린 냉혹한 현실, 고뇌와 사색,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기록했다.	의학
114	책 먹는 법	김이경	유유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책을 접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인문
115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멜라니 조이	모멘토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왜 안 되는지'가 아니라 '고기를 왜 먹는지'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육식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시공을 넘나드는 사례와 연구 결과들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인문
116	어디서 살 것인가	유현준	을유문화사	이 책에서 저자는 "어디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도시를 이야기한다. '어디서'는 '어떤 공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자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인문
117	동물원에 동물이 없다면	노정래	다른	동물원의 역사, 동물 복지 의식 확대에 따른 동물원의 변화, 동물원과 관련된 직업, 동물원에서 일하기 위해 해야 하는 공부를 총체적으로 제시한 책.	인문
118	녹색 상담소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것이아름답다	환경에 대한 41개의 질문을 토대로 어떤 선택이 환경에 이로운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며 읽기 좋은 책.	인문
119	희망 대신 욕망	김원영	푸른숲	장애를 극복하는 희망의 서사가 아닌 장애인도 욕망할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온몸으로 맞섰던 기록.	인문
120	철부지 사회	가타다 다마미	이마	일본의 교육현실에서 드러나는 철부지 부모들의 모습에서 현재 우리 교육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다.	인문
121	열일곱 살의 인생론	안광복	사계절	성장을 위한 저자의 인생 철학은 담은 책. 돈, 짝사랑, 열등감 등 학생들이 공감하기 쉬운 주제어를 뽑아 썼다.	인문

122	시인의 집	전영애	문학동네	세계 곳곳에 역사와 작품을 남긴 시인과 시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책.	인문
123	생각한다는 것	고병권	너머학교	철학에 대한 학생들 눈높이의 입문서.	인문
124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박현희	뜨인돌	흔히 알고 있는 동화를 재밋게 뒤집어보는 책. 백설공주나 이솝우화 등 친숙한 이야기에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결말을 사회학적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된다.	인문
125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김형숙	뜨인돌	국내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로 20년 가까이 일한 저자는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을 모아 글로 썼다.	인문
126	내가 공부하는 이유	사이토 다카시	걷는나무	참된 공부를 하는 것의 의미를 전하는 책	인문
127	우주 만화	이탈로 칼비노	열린책들	과학개념을 활용하며 유쾌하게 풀어내 학생들이 과학개념을 숙지하며 읽을 수 있는 소설.	천문학
128	우리집에 인공위성이 떨어진다면? - 청소년을 위한 천문학 이야기	지웅배	창비교육	우리는 왜 지구가 도는 걸 느끼지 못하는지, 블랙홀 속엔 무엇이 있는지,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할지, 읽다보면 우주에 대한 관심과 재미가 솔솔 피어난다.	천문학
129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유현준	와이즈베리	우리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공간을 건축가의 감성으로 바라보았다.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일상의 공간을 '나만의 공간'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감수성을 키워준다.	천문학
131	여자 노동을 말하다	박수정	이학사	텔레마케터, 패스트푸드점 알바 학생 등 일하며 살아온 여성의 인생 이야기.	노동
132	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	이병훈 외	창비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방송국 작가처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	노동
133	기록되지 않은 노동 :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김시형 외	삶창	땀 흘리며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정직한 삶을 담은 책.	노동

134	한국탈핵	김익중	한티재	핵발전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진지하게 살핀다. 한국이 탈핵해야 하는 이유와 그 가능성을 설명한 책.	환경
135	작은 것이 아름답다, 새로운 삶의 지도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	너머학교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오늘날,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책. 자본과 결탁한 과학기술대신 자연을 이해하는 중간 기술을 소개한다.	환경
136	시그널 기후의 경고	안영인	엔자임헬스	기상전문 기자이자 박사인 저자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책.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 무섭게 경고한다.	환경
137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	최원형	철수와영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소개한다.	환경
138	10대와 통하는 탈핵 이야기	최열 외	철수와영희	핵에너지에 대해 환경운동가, 의사, 도시공학자, 역사학자, 기자가 모여서 최신 정보를 알려준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핵발전소를 안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환경